與 대선, '반이재명'→'반이낙연' 급반전

이낙연 지지율 상승세 타자 경쟁자들 '십자포화'

집중 공격에 李 "참을성 약해…좋은 충고라 생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전선이 '반이재명'에서 '반이낙연'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모양새다.

최근 여권 대선주자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바지 발언' 등으로 주춤한 틈을 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상승세를 타자 이 지사를 필두로 경쟁자들이 이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그에게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견제 행보와 관련, "일일이 다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일자리센터 방문 후 만난 기자들이 이 지사의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옵티머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사망한 이 전 대표의 측근을 겨냥,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며 반격에 나선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전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서는 0점", 박용진 의원이 "식상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좋은 충고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쟁주자들의 이 같은 집중 견제에 대해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다"고 언급한 뒤,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라며 여유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공약 이행률 검증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들이 검증하고 있다"며 "정보 공개에 응하는 게 검증"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경선이 네거티브전으로 비화한다는 지적에는 "정책 경쟁을 꽤 많이 하는데 언론들이 정책 덜 다룬다"며 "정책을 많이 다뤄 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경선 연기론이 재확산하는 데 대해선 "지도부의 판단만 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쟁자들은 이 전 대표를 집중 공격했다.

이 지사가 선봉에 섰다. 이 지사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 "저한테 (가족) 문제 지적을 한 분이 진짜로 측근 또는 가족 이야기가 많다"며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세상에 문제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거 말이 되겠나"라고 일갈했다.

이낙연 후보 측 정운현 공보단장이 이 지사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검증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혜경궁 김씨 건과 본인의 논문 표절 건으로 불똥이 튀는 걸 우려한 것 아닐까'라고 발언한 것에 반격을 가한 것이다.

이 지사는 "자기 가족 검증할까봐 그것을 피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니 황당무계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옵티머스 사건 당시 이 전 대표 측근이 금품수수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그분이 전남지사 경선 때 가짜 당원 명부를 만들고 해서 시정 받은 핵심 측근"이라며 "그 부분에 먼저 소명해야지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제 가족을 걸고넘어지니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국무총리 시절은 대단히 안정감을 갖고 하셨다고 평가하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당대표로서는 점수를 드린다면 0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그분(지지율)이 지금 한 10%대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40%대에 계셨던 분 아닌가"라며 "국민들에게 식상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토론회 때 (이 전 대표에게)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냐. 그런데 또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국민들이 '그저 그런 후보'라고 보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비전발표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미애 "광주·전남 국가균형발전 전초기지·헌재 유치" 공약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광주와 전남 지역을 국가균형발전4.0시대를 열어갈 전초기지로 삼겠다"며 "헌법재판소 유치, '광주-나주-목포' '여수-순천-광양'을 잇는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광주·전남 비전발표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4.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광주·전남을 국가균형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싣는 개헌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유치해 헌법 중심 도시 광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에 버금가는 '광주-나주-목포', '여수-순천-광양'일대를 잇는 호남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광주와 전남에 적합한 산업 기반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광주에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AI대학원'을 설립해 인공지능 허브로 육성하고 공기질의 악화와 규제 강화로 연간 166조에 달하는 시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공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그린 뉴딜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에는 국가 차원의 지역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남권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며 "이미 조성 계획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에너지개발구역 지정과 새로운 항만 기본 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 핵심시설인 '차세대 대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조속 개교, 우주 산업 개발과 미래비행체의 시범단지를 구축해 남해안을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섬 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선옥 기자

최재형 입당 '속도전' vs 윤석열 '지연'…누가 유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조직·정책 개발에 당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윤석열, 여권 검증공세 대응 미흡으로 실점 가능성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입당보다는 독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전 원장은 14일 권영세 위원장과 만찬회동을 한다. 당에서는 이례적으로 둘의 만남을 사전에 언론에 공지했다. 최 전 원장은 13일에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부친 빈소에 조의를 표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최 전 원장의 측근은 12일 이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최 전 감사원이 입당과 동시에 대선출마 선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일단 조속한 입당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다른 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과 인지도가 낮은 최 전 원장이 입당한다면 조직과 정책 개발에 있어 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최 전 원장의 경우 현재 일정 조율부터 메시지는 내는 것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 전 원장이 입당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플랜B'로 평가받는 만큼 당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받을 수 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독자 행보를 통해 중도 지지층을 확장해가면서 높은 지지율을 관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당 시 협상력을 높이거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고려한 포석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야권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에 대선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입당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도, 호남 등의 지지율은 지난 4월 30%까지 나오던 것이 7월 중순 10%가 빠져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그간 X파일 의혹보다는 부인의 논문 문제가 악재가 된다고 봐야한다"며 "장모나 부인의 재산형성 부분도 그렇고 동시에 정치행보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쌓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윤 전 총장은 입당이 늦어질 수록 불리하다고 본다"며 "악재가 있는데도 대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차라리 입당을 해서 당의 지원을 받는게 나을거 같은데 계속 미룬다. 제2의 안철수 같은 느낌을 주면서 정치력도 부족하다보니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청년 창농타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발의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최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회의에서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농산업 창업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서 의원은 "농산업 분야의 창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이며 높은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